

#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직매장 ‘대박’

### 첨단에 개장 40일만에 매출 10억 돌파... ‘그림책 푸드아트’ 등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

장성군이 광주시 첨단 오룡동에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이 단기간에 대박 매출을 기록했다.

장성군은 지난 6월 개장한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이 7월말 기준 개장 40여일 만에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직매장은 농수축산물만 판매하는 로컬푸드 전문매장으로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운영 목표다.

직매장은 부지면적 5257㎡에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지역농산물을 비롯해 정육, 수산, 베이커리, 반찬, 떡, 카페, 푸드코트 등 10개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1층은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운영 중이며, 2층에는 소비자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육장, 쿠킹 클래스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특히 12만명 규모의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그림책 푸드아트’와 ‘요리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도 인기를 끌었다.

상추, 토마토, 바질 등 수급에 사용된 재료를 장성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준비해 로컬푸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 북구 첨단 오룡동에 문을 연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직매장’ 전경.

장성군은 직매장이 중소농업인과 도시 소비자 모두를 위한 도농 상생 우수 직매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장 경영과 프로그램 기획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장성 먹거리에 대한 광주권 도시 소비자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직매장이 도시민과 농촌이 소통·상생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장흥 물축제 끝나도 물놀이는 계속”

### 군, 탐진강 물놀이장 15일까지 연장 운영

장흥군이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폐막 이후에도 ‘탐진강 물놀이장’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여름철 여가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으며 연장 운영 기간은 물축제가 끝난 다음날인 8일부터 광복절 연휴인 15일까지다.

연장 운영 기간 중에는 물놀이용 풀장 1면과 어린이용 물놀이터를 무료로 개방한다.

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물놀이장 내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실천할 방침이다.

특히, 정기적인 수질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이 용객 안전에 중점을 두고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물놀이장 인근 설치된 바닥분수는 오는 31일까지 정상 운영해 주민들의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물놀이장 운영수칙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물놀이를 즐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나주시 민·관·군 ‘농촌 일손돕기’ 팔 걷었다

### 시청·농협·공군부대 등 참여

나주시가 민·관·군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영농 현장에 팔을 걷어 붙였다.

나주시는 최근 다시면 고추농가 등 4개 지역에서 광주제1전투비행단 공군부대,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와 농촌사랑 일손돕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고령농가를 선정, 적기 영농을 위한 군부대의 긴급인력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여기에 농협 나주시지부 직원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합세해 50여명이 고추수확과 과수원 벗짚 갈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조성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무더운 날씨에 일손 돕기에 참여한 군부대 장병들과 농협 임직원들의 값진 땀방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기 영농을 위한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다각적



광주제1전투비행단 공군부대 장병과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직원들이 다시면 고추농가에서 농촌사랑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인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청년들 ‘강진 살아보기’ 어땠나요?

### ‘창작상단’ 활동 결과 발표회 가져

강진군이 최근 외부 청년들의 강진 살아보기 ‘창작상단’ 활동 결과 발표회(사진)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강진원 강진군수, 청년마을만들기 수행기관 아트랩소디(대표 전지윤)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했다.

강진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7월 24일부터 2주 동안 진행했으며 강진 청년 4명과 타 지역 청년 8명이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적자산과 환경을 둘러보고 이를 상품화해 창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활동 결과로는 4명의 청년이 강진에서 정착하기를 희망했으며 지역 청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했고 유명 유튜브를 통해 강진을 홍보하는 효과도 얻었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트랩



소디 전지윤 대표는 “앞으로 창작상단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기 위해 강진을 시장과 병영시장을 중심으로 문화살롱과 플라마켓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들이 강진에서 창업하고 완전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화순군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70세 이상 대상 126곳 혜택

화순군이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화순군은 만 70살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보상금과 함께 제공하는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어르신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보상금 20만원만 주어졌다.

화순군은 8월부터 혜택을 확대해 전남도 내 126개 업체에서 5~30% 상시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대상자는 화순군에 주소를 둔 만 70살 이상 어르신이다. 협력업체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약국, 안경점, 보청기점, 이·미용원, 식료품점, 의류점 등이다.

할인 업체를 이용할 때는 운전면허 반납 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함평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목표치 달성

함평군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최근 급식시설, 음식점 등 관내 107개소에서 국산김치 사용 인증을 득하며 전남도 목표치인 105개소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주요 시책인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군은 현재까지 함평 생비법협동조합을 비롯한 107개소(음식점 79, 급식시설 27, 구내식당 1)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까지 음식점 2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